

19세기 후반 한역 근대 과학서의 수용과 이용: 지석영의 『신학신설』을 중심으로

김연희†

1. 머리말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약 220종의 한역 근대 서양 과학서를 수집했다.¹ 정부가 한역 근대 과학 서적 수집과 유통에 적극 개입함에 따라, 관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서적 수집과 장서 역시 활발해졌다.²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유명한 장서가로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 등장할 수 있었고,³ 일개 서생이었던 지석영(池錫永, 1855-1935)조차 이 서적들을 입수해 읽을 수 있었다.⁴ 과거에 합격하

이 논문은 2014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 SiA5B5A02016265).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연구센터, imwoowha@hanmail.net

¹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연희, “1880년대 수집된 한역 과학기술서의 이해: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3:1 (2016), 71-119 참조.

² 정부 기관에서는 이들 서적들을 재인쇄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1887년 5월 한 달에 국한된 것이지만 박문국의 장부에는 출판 인쇄 관련 사업에 관한 지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局用上下冊』(규26113)을 참조. 장영숙,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61(2012), 7-39 중 25.

³ 역관으로 활동했던 오경석은 개항 전후 『박물신편』, 『양수기제조법(揚水機製造法)』, 『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 『지리문답(地理問答)』을 포함 수백 권의 책을 청에서 수집해 소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歷史學報』 107 (1985. 9), 107-187 중 186 참조. 이 책 가운데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승信, 『博物新編』(1855) (奎中 4922), 『中西聞見錄』(奎中 4590) 정도다.

⁴ 지석영은 1883년(고종 20) 문과에 급제하여 관료의 길로 들어섰다. 1887년 그는 시폐(時弊)를 논한 여파로 전라남도 강진의 엽지도(현재 신지도)로 유배를 갔다. 1894년(고종 31) 관직에 복

기 전인 1882년, 지식영이 쓴 개화 상소에는 홉슨(合信, Benjamin Hobson, 1816-1873)의 『박물신편(博物新編)』, 마틴(丁建良, William A. P. Martin)의 『격물입문(格物入門)』, 프라이어(傅蘭雅, John Fryer, 1839-1928)가 중국 상해의 강남제조국 번역관(江南製造局 翻譯館)에서 편집 간행한 『격치휘편(格致彙編)』을 포함한 한역 근대 과학서들이 거론되어 있었던 것이다.⁵ 이를 통해 그가 한역 근대 과학 서적들을 접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월간지 『격치휘편』은 조선에 수집된 40여 권 전부를 그가 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근대 과학 관련 글들이 실렸던 만큼,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들의 글들은 읽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⁶

실제로 지식영 또한 적지 않은 서양 과학 서적을 수집하고 장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증언에 의하면 지식영의 집에는 『박물신편』, 『전체신론(全體新論)』, 『내과신설(內科新說)』, 『부영신설(婦嬰新說)』, 『화학초계(化學初階)』, 『유문의학(儒門醫學)』 등을 포함한 14종의 중국본 한역 근대 과학서들이 소장되어 있었고, 관련 서적들의 자필본도 함께 있었다. 이는 서양의 근대 과학에 대한 지식영의 관심이 컸음을 보여준다.⁷

지금까지 개항 전후 지식인들이 한역 근대 과학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최한기(崔漢綺, 1803-187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⁸ 이 글에서 필자는 지식영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그는 최한기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는데, 최한기가 전통적 ‘기(氣)’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해 서양 과학

귀했으며 이듬해에는 동래부사, 동래부 관찰사의 직을 수행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1899년 세운 의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어 서양 의학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1907년 통감부에 의해 의학교가 대한의원 의육부(大韓醫院 醫育部)로 개편되자 교장직에서 물러났고, 학감으로 서양 의학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지만 경술국치로 관직에서 퇴직했다. 이처럼 그는 개화기 역사에서 큰 흔적을 남겼고, 특히 천연두 예방을 포함한 위생 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학회 엮음, 『송촌 지식영』 (아카데미아, 1994), 25-71 참조.

5 『승정원일기』, 1882년(고종 19) 8월 23일.

6 『격치휘편』에 대해서는 김연희,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 시대 서구 문물 수용노력”, 『한국과학사학회지』 33:1 (2011), 15 참조.

7 三木榮, 『朝鮮醫學士及疾病史』 (京都: 思文閣, 1962), 267-268. 거론된 이 책들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도 소장되어 있다. 그는 지식영이 이들 서적 이외에도 일본에서 발행한 의학서 6, 7권을 더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8 이현구, 『최한기의 기철학과 서양 과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김성준, “18·19세기 조선에 전해진 서구 腦主說과 惠岡 崔漢綺의 대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서적을 활용했다면, 지식영은 실천과 교육을 위해 근대 과학을 습득하고 이해하려 했다. 실제로 지식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우두를 중심으로 한 근대 의학 도입, 근대 의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선각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가 편찬한 『우두신설(牛痘新說)』 역시 이런 관심에서 고찰되었다.⁹

이 글은 한역 근대 과학서가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식영이 찬(纂)한 『신학신설(身學新說)』을 분석할 것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신용하가 “한국인이 근대에 서양 의학에 의거하여 ‘저술’한 최초의 위생학서이자 예방 의학서”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¹⁰ 이러한 평가는 이후 기창덕의 글들에서 반복되었다.¹¹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내용의 검토는 1990년대 말에야 비로소 신동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책이 전통적 양생의 체계와 뚜렷이 구분되며, 세균설 이전의 서양 위생학 내용을 상당 수준까지 읽어낸 것으로 학문 차원으로 승화시킨 저작”이라고 평가했다.¹² 이어 박운재는 “전통의 양생과 차별을 시도한 책”이라고 의의를 내세웠다.¹³ 이런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그들 연구의 초점은 근대 의학 및 위생학이 조선에 도입, 수용, 정착되는 과정을 해명하는 것이었기에 『신학신설』이 관심의 중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그들은 이 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 책과 근대 과학의 연관성, 관련 근대 과학 서적들이 이 책에 끼친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고찰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 자체에 주목한 연구로는 『신학신설』에 서술된 위생론을 주거 환경의 차원에서 다룬 논문만이 있을 뿐이다.¹⁴

이 글은 『신학신설』과 지식영이 거론한 서적들을 포함해 당시 유통되었던 한역 근대 과학서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⁵ 지식영

9 대한의사학회 엮음, 『송촌 지식영』; 김두중,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 4 (1956), 31-76.

10 신용하, “『池錫永 全集』 해제”, 『지식영전집』 (아세아문화사, 1985), 8; 신용하, “池錫永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한국학보』 30:2 (2004), 89-112 중 101.

11 기창덕, “지식영 선생의 생애”, 대한의사학회 엮음, 『송촌 지식영』, 21-52 중 33; “송촌 지식영과 의학교”, 같은 책, 73-88 중 76.

12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 의료사』 (한올아카데미, 1997), 131-133.

13 박운재, “양생에서 위생으로”, 『사회와 역사』 63(2003), 30-50 중 34-35.

14 김명선, “지식영의 『신학신설』 (1891)에서 근대적 주거 문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9:9 (2008), 765-770.

15 이 책의 표지에는 지식영 ‘찬’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학계에서는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한역 서양 과학서를 읽고 정리해 ‘국문’으로 번역한 이 책을 통해 그가 내세운 ‘새로운 보신지학’의 내용을 살피고, 그 과정에 일어난 서양 근대 의학의 변용 형태도 점검해보려 한다. 이는 조선에서의 근대 위생론 형성 과정에서 그의 ‘새로운 보신지학(保身之學)’의 역사적 위상을 재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지식영과 『신학신설』

1) 『신학신설』의 저술 배경

『신학신설』은 지식영이 1892년 유배지에서 편찬한 책이다. 그는 『신학신설』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즉 ‘보신지학’에 관한 글로 규정했다.¹⁶ 그는 『신학신설』의 서(序)에서 “아버지도 생기고(섬기고) 몸도 호위(하)기에 쓸까” 해서 이 책을 썼다고 고백했다.¹⁷ 또한 그는 ‘보신지학’을 정리함으로써 의원을 찾지 않아도 될 방법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도 내비쳤다.

지식영이 이 책을 편찬한 데에는 유의(儒醫)로 유명했던 아버지에게 의해 형성된 집안 분위기, 어려서부터 박영선(朴永善)에게서 배웠던 한의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1876년 이래 가졌던 우두에 대한 관심, 이를 습득하기 위해 공부했던 서양 의학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¹⁸ 그가 이 책을 여러 한역 근대 과학서들을 참고로 찬(纂)했음을 밝히던 만큼, 서양 과학에 대한 지식도 이 책의 편찬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880년대 조선 사회에 알려지

‘저술’의 표현은 신용하가 『지석영 전집』의 해제에서 사용한 이래 지속되었다. 신용하, “『池錫永全集』 해제”, 8.

¹⁶ 지식영, 『신학신설』, 대한의사학회 엮음, 『송촌 지식영』 (이하 지식영, 『신학신설』로 약함), 246. 이글에서 『신학신설』을 인용할 때 한문을 병기하거나 띄어쓰기도 했는데,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같은 책, 193쪽에서 ‘보신지학’의 한자를 ‘補身之學’으로 달았으나 지식영의 책과 그가 참조한 여러 책들을 살핀 결과 ‘保身之學’이 적당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사용할 것이다.

¹⁷ 이와 같은 전통 양생의 도의에 대해서는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151, 161-162;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들녘, 2015), 103-106 참조.

¹⁸ 박영선은 1876년 병자 수호 조약 체결로 수신사 김기수와 함께 일본에 파견됐다. 그는 지식영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두법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오다키(大瀧富川)에게 우두법을 배우고 구가(久我克明)의 『종두귀감(種痘龜鑑)』을 얻어 지식영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 “池錫永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90.

기 시작한 위생의 중요성에 관한 담론 및 관련 사업도 영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1884년 4월 “만국위생회(萬國衛生會)”라는 제목으로 『한성순보』에 실린 기사이다.¹⁹ 이 기사는 만국위생회 설립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구미 각국에 통고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이 기사에서는 신체 외부에 병인(病因)을 두고 설명하겠다는 목적에 충실하게 병인의 하나로 감염을 지적했는데, 이는 1880년대의 시점에서 꽤 발전된 논의였다. 감염을 “병든 사람으로부터 옮겨오며, 환자와 가까이 접함으로 오염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천연두를 들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다룬 위생의 항목으로 ‘행위’를 기술할 때 ‘양신(養神)’이라는 전통의 용어를 썼지만, 이를 나쁜 자세, 심한 노동에 의한 피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전통 방식과는 다른 설명을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신문에는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의 “치도약론(治道略論)”도 실렸는데, 당대 개화파 지식인의 위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여주는 기사였다.²⁰ “치도약론”에서 그는 길을 넓히고 깨끗이 하는 일이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업 진흥과도 연결된다고 역설했다. 이들 기사 이외에도 『한성순보』는 지속적으로 서양 의학 및 의료, 위생의 동향을 알리는 기사들을 보도했다.²¹ 1880년대 초에 제시된 위생론은 비단 담론 수준에만 그치지 않았다. 치도 사업 등의 정책이 함께 추진된 것이다. 1883년, 한성부 부윤 박영효(朴泳孝, 1861-1939)는 치도 사업을 강력히 시행했다. 김옥균의 “치도약론”은 그의 개화 동지인 박영효의 치도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컸다. 비록 이 사업은 도로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점거한 가가(假家)를 허물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과 비판을 해결하지 못해 실패했지만, 당시 사회에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지석영은 당시 위생 담론 및 관련 사업의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박영효와 김옥균이 한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당시, 그는 이미 문과에 급제하여 서울에서 성균관 전적(典籍) 등의 관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 그 전인 1882년 개화 상소를 썼을 정도로 개화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²² 무엇보다

19 『한성순보』, 1884년 4월 11일 [갑오개혁 이후에야 태양력이 공식화되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연기(年期)를 태양태음력으로 표기한다].

20 『한성순보』, 1884년 윤5월 11일.

21 이들 기사의 소개와 분석에 대해서는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 의료사』 (각주 12), 55-57을 참조.

22 『고종실록』, 1881년(고종 19) 8월 23일.

1880년 전후부터 우두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그는 위생 담론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편찬한 『신학신설』은 그가 관료로 활동했던 바로 1880년대 조선 정부가 집중적으로 수집했던 서양 근대 과학서에 힘입은 바가 크다.

2) 한역 서양 근대 과학서와 『신학신설』

① 『신학신설』의 참고 문헌

지석영은 근대 과학서를 활용해 『신학신설』을 편찬했다고 기록했다. 그가 한의학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통 예방법에 깊은 회의를 표명하면서 다른 참고 문헌을 찾았다. 그가 찾아낸 책들은 서양 근대 의서 혹은 과학 서적들로, 그는 이 책들에서 밝힌 보신의 방법이 “논리가 쉽고 이치가 매우 밝아 헌원(軒轅)과 기백(岐伯)조차 다 밝히지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극찬했다.²³

지석영이 참고했다고 밝힌 서양 서적은 3종으로 『박물신편』, 『전체신론』, 『서약약석(西藥略釋)』이다.²⁴ 이 중 『박물신편』은 1860년대부터 조선에서 널리 알려졌다. 오경석이 수집했고, 최한기가 『신기천험』에 전재했으며, 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기수의 『일동기유(日東記遊)』에도 내용이 등장한 만큼 조선 사회에서 널리 읽혔던 책이다.²⁵ 지석영 자신도 개화 상소에서 이 책을 언급했다. 『전체신론』은 『박물신편』의 저자인 홉슨이 쓴 해부학 책이다. 이 책은 근골격 기관과 소화 기관, 호흡 기관 등 인체 각 부분의 모양과 기능 등을 설명한 해부학서였다.²⁶ 언급 횟수가 한 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서약약석』도 보았다고 기록했다.²⁷ 이 책은 중국에서 공계량(孔繼良)이 번역하고 미국 선교사 커(嘉約翰, John Glasgow Kerr, 1824-1901)가 교정해 출판한 서양 약학 서적으

²³ 지석영, 『신학신설』, 246.

²⁴ 합信, 『博物新編』 (1855); 합信, 『全體新論』 (1851) (奎中 5372); 嘉約翰, 孔繼良(清) 譯撰, 『西藥略釋』 (1876/1886) (奎中 5122).

²⁵ 김기수, “日東記遊”,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修信使記錄』 (探求堂, 1971), 31.

²⁶ 합信, 『全體新論』 (1851). 홉슨은 『전체신론』이 지나는 미진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약약론(西醫略論)』을 썼다고 고백했다. 합信, 管茂材(清) 撰, 『西醫略論』 (1857) (奎中 4704).

²⁷ 이 책을 자세히 볼 것을 권한 부분은 『신학신설』, 276 오른 면에 나타나있다. 하지만 이는 『유문의학』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유문의학』에는 권하(券下)를 보면 상세히 나와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로 병의 진단과 처방을 약제(藥劑)를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다.

지석영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유문의학(儒門醫學)』과 『부영신설(婦嬰新說)』도 많이 활용했다.²⁸ 『유문의학』은 영국의사인 헤드라인(海得蘭, Frederick. W. Headline)이 1867년 런던에서 출간한 *A Medical Handbook with Hints to Clergymen and Visitor of the Poor*를 프라이어가 상해에서 1876년 번역한 책이다. 원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 전문서가 아니라 안에서 수준의 책이었다. 권상(券上)의 ‘논양신지리(論養身之理)’, 권중(券中)의 ‘논치병지법(論治病之法)’, 권하(券下)의 ‘논방약지성(論方藥之性)’ 등 3권으로 나누어진 이 책 가운데 그는 특히 권상을 활용했다.²⁹ 『부영신설』은 홉슨이 부인과와 소아과를 합쳐 정리한 의서로 여성과 남성 및 어른과 어린이의 신체가 서로 다를 것을 전제했다. 어른의 축소판으로만 여겨지던 아동의 치료 방식이 어른과 달라야 함을 알리는 의학서였던 것이다.

② ‘새로운 보신지학’ 들의 구축

지석영은 ‘새로운 보신지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의 양생의 방법을 담은 책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는 전통의 책들에서 내세운 의미는 심오하지만 명쾌하지 않아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²⁸ 海得蘭(英)撰, 傅蘭雅(英)口譯, 『儒門醫學』(1876) (奎中 2895-v.1-4); 合信, 『婦嬰新說』(1858) (奎中 4832). 조선 정부에 의해 수집된 한역 근대 과학 서적 가운데에는 『위생요결』이라는 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1888년 『유문의학』의 권상(券上)만을 신양(新陽)의 조원의(趙元益)이 필술(筆述)하고 주선상(周善祥)이 채집(採輯)해 엮어 출판된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2장의 작은 책자로 지석영은 이 『위생요결』도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책의 서(序)에서 공히 황제(黃帝)와 기백(箕伯)을 거론했고, 지석영의 ‘총론’에서 보이는 “사람이 능히 자보 기신하기가 의원의 치병하기보다 가는 용이현이라. ... 무병지시에 근신하면 가히 의원에게 구할 것 업스리라”는 표현이 『위생요결』 30면의 ‘신질요언(慎疾要言)’ 첫 두 줄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석영이 『위생요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생요결』의 ‘서’와 ‘신질요언’을 제외하고는 그 원본인 『유문의학』을 전재했음을 확인했고 그의 서재에 『유문의학』이 소장되어 있었기에, 이 글에서는 『유문의학』을 이용할 것이다. 海得蘭(英), 傅蘭雅(英) 口譯, 『衛生要訣』(鴻門書局, 1888) (奎中 6361).

²⁹ 권중의 ‘논치병지법’에는 중풍, 뇌염, 뇌상풍, 간염, 심병 등 110여 병증의 증세와 진단이, 권하의 ‘논방약지성’에는 다양한 산(酸)을 기반으로 하는 산류약(酸類藥)을 포함한 160가지 약 성분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들고 다니며 간단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병증대략(病症大略)’과 ‘간이간방(簡易良方)’을 두었다. 한편 프라이어는 이 책의 원제를 ‘소매에 넣고 다니는 조그만 책’이라는 의미의 ‘의학수진(醫學袖珍)’이라고 번역했다.

그가 보기에 전통 양생법들은 인성(人性)에만 힘써 정작 보신(保身)하기에는 소홀하게 해 결국 병에 걸려 의원을 찾게 만들었다.³⁰

전통 방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석영은 새로운 방도를 찾았고, 그 결과 이 “몸을 호위하는” 새로운 책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 작업이 전적으로 서양의 관련 서적들을 얻어 읽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판단하기에 서양 과학서들은 “의론이 가깝고 쉬우며 이치가 맑고 밝아서 일일이 증거를 찾을 수 있어 절절(節節)이 모두 표준으로” 삼을 만했다. 그는 단지 서양의 과학서 혹은 의서들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보신지학’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책들을 모본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했다. 그는 자신이 꾸민 『신학신설』로 사람들이 병의 이치에 밝아지고, 몸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어 “약을 쓰고 의원을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³¹

지석영은 ‘새로운 보신지학’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짰다. 그는 병인을 몸 내부보다 외부에 두고 외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보신지학의 구조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 구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 축들은 광(光), 열(熱), 공기, 물, 음식, 운동이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책을 서론, 총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앞의 여섯 가지 요소, 그 중 ‘공기’ 편의 부록으로 삽입된 ‘지기(地氣)’, 그리고 책 전체의 부록으로 덧붙여진 ‘보영(保嬰)’으로 이루어진 모두 8편으로 구성했다. 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제시한 여섯 가지 요소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보신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석영이 새로운 보신지법의 축으로 이 여섯 요소를 설정한 데에는 그가 접한 문헌과 책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먼저 그가 언급한 『박물신편』은 ‘지기론’, ‘열론’, ‘수질론’, ‘광(光)론’, ‘전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론’을 제외하고 모두 그의 보신지법과 관련이 있다. 또 그가 서울에서 활동했던 시기에 발행되었던 『한성순보』에 실린 “만국위생회” 기사도 병안을 외부에 두면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식, 공기, 기후, 행위, 유전, 감염 등 여섯 가지를 꼽았다.³² 그가 직접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않지만 그가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위생론』에서도 유사한 항목들을 거론했다.³³ 『화학위생론』은 모두 33장으

³⁰ 지석영, 『신학신설』, 246.

³¹ 같은 책, 246-247.

³² 『한성순보』, 1884년 4월 11일.

로 구성된 방대한 서적으로서, 공기에 해당하는 ‘논호흡지기(論呼吸之氣)’, ‘논호흡공기(論呼吸空氣)’, 물과 관련한 ‘논소음지수(論所飲之水)’, 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서양 차와 술, 음식이 포함된 ‘논소식지량(論所食之糧)’, ‘논소식지육(論所食之肉)’, ‘논소화음식지리(論消化飲食之理)’, ‘열’과 관련한 직물(織物) 등 위생과 관련된 33개의 항목들이 다루어졌다. 이 책에는 이들 모두가 보신과 관련됨을 밝히는 기사인 ‘논양신지리(論養身之理)’도 있었다.³⁴ 지식영의 『신학신설』의 구성에는 무엇보다 『유문의학』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 책은 그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배열 순서, 공기에 ‘부’로 ‘지기’가 첨부된 것까지도 같았다.

이렇게 새로운 보신지학의 항목들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영은 인성의 함양이나 운기(運氣)와 같이 보신을 몸 내부에서 국한하는 전통 양생의 시각에서 벗어나 예방과 보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3) 『신학신설』과 한역 서양 근대 과학서의 활용

(1) 『신학신설』의 내용과 참고 문헌의 활용

지식영이 제시한 새로운 ‘보신지법’의 첫 번째 요소로 꼽은 항목은 ‘빛’이었다. 먼저 빛을 만물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 규정한 그는 근원으로 태양을 꼽았다.³⁵ 만물을 밝히는 햇빛이 만물의 성장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광(光)이 없으면 반드시 맹자의 손으로써 만지고 코로써 맡고 혀로써 맛보고 귀로써 듣다가 몸에 떠나기를 조금 멀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빛의 중요성

33 傳蘭雅(英) 譯, 『化學衛生論』(奎中 4577)(1881). 『화학위생론』의 원제는 *The Chemistry of Common Life*이며, Jas. F. W. Johnston이 1855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지식영이 1882년 개화 상소에서 거론한 『격지휘편』에 1880년부터 1881년에 걸쳐 연재되었다. 연재 도중인 1881년 단행본으로 발행되었고, 조선 정부는 이 책을 1882년에 수집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희, “1880년대 수집된 한역 과학기술서의 이해” (각주 1), 113, 117 참조.

34 이 책은 인체의 호흡, 소화, 순환 등과 관련하여 당대 알려진 화학, 식물학, 지질학 지식을 망라했고, 주제들을 매우 전문적인 과학적 서술을 통해 설명했다. 번역 책임자인 프라이어는 『화학위생론』 82면에 주석으로 『전체신론』을 언급하여 『전체신론』에 권위를 부여했다.

35 지식영, 『신학신설』, 248.

을 설명했다. 그는 빛이 인간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의 호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보다 농촌에서 햇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혈액이 좋다고 주장하면서 집을 지을 때 방에는 반드시 창을 두고, 특히 어린이의 방과 병자의 방에 빛을 많이 들게 하라고 권했다.

이 ‘빛’ 편을 지석영은 『유문의학』 5면부터 9면의 내용을 이용해 구성했다. 그는 『유문의학』의 글들을 군데군데 발췌했지만 그 책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을 생략하지는 않았다. 영국 런던에서 실시되었던 건물 창문의 개수에 따른 세금 징수 방식이 폐지되었다든가, 색안경은 녹색이 좋다는가, 심지어 근시에 안경을 쓰지 말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번역해 옮겼다. 그렇다고 『유문의학』의 글을 순서대로 전제한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글의 차례도 바꾸었다. 예를 들면 『유문의학』에서는 일조(日照)와 관련해 ‘병실, 어린이의 방, 새벽광과 침실, 일광에 의한 소독, 채광과 창 가리개 활용’의 순서로 글을 실었는데,³⁶ 그는 이를 ‘채광, 창 가리개 활용, 침실, 어린이 방, 병실, 일광에 의한 소독’의 순으로 재배치했다.³⁷ 그가 보기에 가옥의 채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지석영은 ‘보신지학’의 두 번째 이치로 ‘열’을 들었다. 그는 열에 힘입어 만물이 탄생하고 생을 이어가기 때문에 ‘열’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³⁸ 그는 ‘열’이 ‘형태와 질(質)이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닌’ 성질을 지녔으며, 이는 햇빛 열, 화열(火熱), 전기열(電氣熱), 본열(本熱, 육신열), 화성열(化成熱), 상격열(相擊熱) 등의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³⁹ 그는 이 여섯 가지 열 가운데 보신과 관련된 본열에 대해서만 해설했다. 그는 본열이란 호흡에 의한 것으로 몸에 존재하는 탄기가 호흡으로 몸에 들어온 양기를 만나 화합해 발생한다고 이해했다. 본열을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구성하기 위해 그는 ‘열’ 편을 열의 정의, 열과 생명의 관계, 열의 종류, 본열과 신진 대사, 호흡과의 관계, 외기(外氣)에 따른 보온과 더위에 의한 몸의 변화 등으로 구성했다.

이 ‘열’ 편을 구성하면서 지석영은 ‘본열’과 몸에서 ‘열’을 내는 증거, 땀의 역

³⁶ 『유문의학』, 7-8.

³⁷ 지석영, 『신학신설』, 251-252.

³⁸ 같은 책, 252-253.

³⁹ 열의 종류를 거론할 때 그가 참고한 『박물신편』에는 본열이 육신열(肉身熱)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흡스, 『박물신편』, 19 참조.

할 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박물신편』, 『유문의학』, 『전체신론』 등 3권의 책을 활용한 것이었다[표 1]. 그는 이 책들을 참고했고, 재구성했다. 그는 자신의 논리대로 ‘열’ 편을 구성하기 위해 『유문의학』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유문의학』은 ‘본열의 기제 - 더울 때 몸의 반응 - 보온’으로 순서로 되어있지만, 그는 ‘본열의 기제 - 보온 - 더울 때의 몸의 반응’의 순서를 택하여 보온을 먼저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몸이 열을 내는 기제를 설명하면서 몸에서 열을 내더라도 추울 때에는 보온이 필요하다는 설명 방식이 더 이해하기 쉬웠다.

표 1. 『신학신설』 ‘열’ 편에서 보이는 한역 근대 과학서 활용 및 지식영의 의견

『신학신설』	글의 구성 (활용 문헌 및 의견)	내용
252 원 11 - 253 오른 8	『박물신편』 19	열의 정의
253 오른 9 - 253 원 4	지석영 의견	본열의 정의
253 원 5	『유문의학』 10	열과 생물
253 원 6	『전체신론』 16	한서표
253 원 7 - 254 오른 3	『유문의학』 10-11 발췌 요약	호흡과 본열의 발생 기제
254 오른 4 - 254 원 1	『유문의학』 11	본열과 음식 섭취
254 원 2	『유문의학』 11 발췌 요약	본열과 호흡, 혈(血)과의 관계
254 원 3-4	지석영 의견	본열과 호흡의 관계에 대한 증거
254 원 4-10	『박물신편』 20	외기에 따른 몸의 변화와 보온
254 원 10-11	『유문의학』 16	보온 방법
254 원 11 - 254 오른 4	『박물신편』 20 발췌 요약	전열
254 오른 4 - 255 원 10	『박물신편』 20	보온에 좋은 피복 순서
255 원 10 - 256 오른 5	『유문의학』 16	보온과 의복 색상
256 오른 6 - 256 원 4	『유문의학』 17	취침 시 보온을 위한 침구의 필요성
256 원 4 - 257 오른 1	『유문의학』 12	더울 때 근육의 상태
257 오른 1 - 257 원 1	『유문의학』 13	땀의 기능
257 원 1 - 258 오른 2	지석영 의견	더위에 의한 병증 및 예방
258 오른 2 - 258 오른 7	『유문의학』 8	적당한 실내 온도

지석영은 또한 이 ‘열’ 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온’을 원활하게 설명하기 위해 『유문의학』과 『박물신편』의 내용을 섞거나 글 순서를 재편집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전열’, 즉 보온의 원리인 ‘열의 전도’에 관한 설명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관련해 『유문의학』과 『박물신편』이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좀 더 설명이 잘 된 『박물신편』의 글을 골라 번역했다. 그렇다고 『박물신편』의 글을 그대로 신지도 않았다. 그는 열전도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쇠와 양모(羊毛)의 열전도 차이를 다루고, 보온을 위한 의복 재료를 다루었다.⁴⁰ 그리고 여기에 보온과 옷 색깔과의 관계를 『유문의학』에서 가져와 글을 이어갔다.⁴¹ 그는 검은 옷과 하얀 옷의 열의 흡수 능력을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보온이 의복의 소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색상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 편에서 지석영은 군데군데 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예를 들면 그는 본열을 정의하며 이로 인해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고 부연했으며,⁴² 몸을 급히 움직이면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더운 것이 본열과 호흡의 관련을 보이는 증거라고 해석하기도 했다.⁴³ 그리고 여름날뿐만 아니라 “방속에 더운 것이 과대하면(공기 속 동식물질을 살려서 악기(惡氣)를 막기 어려운이라) 그 사람이 상해 상풍지병이 많은이[많은니] 그 연괴 어찌 힘인고[함인가]”라고 질문한 후, 방안이 매우 더우면 “피부가 늘어지고 땀 구멍이 커져 땀이 많이 나고 몸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져 외기에 엄습함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답하면서 더위와 몸, 발병과의 관계를 설명했다.⁴⁴

지석영이 설정한 보신의 세 번째 축은 ‘공기’이다. 그는 공기의 정의, 구성, 역할, 호흡과 신체 기관, 탄기에 의한 공기의 질, 이와 관련한 방의 크기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지기’를 부록으로 두어 공기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기’ 편을 편집할 때에도 『박물신편』, 『유문의학』, 『전체신론』을 활용했다[표

40 지석영, 『신학신설』, 254-255. 그가 참조한 『박물신편』에는 사람의 체온이 기온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보온할 것을 권한 후에, 쇠와 솜 같은 재질에 따른 열전도의 차이, 보온을 위해 철과 같은 금속이 부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는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박물신편』, 20.

41 지석영, 『신학신설』, 255-256; 『박물신편』, 20 (의복 소재와 관련해 유사한 내용이 『유문의학』 22-23에서도 보이지만 이 내용은 『박물신편』에서 가져왔다); 『유문의학』, 16.

42 지석영, 『신학신설』, 253.

43 같은 책, 254.

44 같은 책, 257.

2]. 그에 의하면 공기는 “모양도 맛도 없지만 땅위의 물건으로 위로 오를수록 얹어져 대략 150 리에 이르면 없어”지는 물체였다. 그는 공기가 양기(산소), 담기(질소), 탄기(탄소)⁴⁵, 경기(수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공기의 구성 비율과 각각의 특징을 제시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양기를 흡수하고 탄기를 배출함에도 양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식물이 빛과 함께 탄기를 흡수하고 양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⁴⁶ 특히 탄기는 독한 공기였다. 피가 양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피 속의 탄기로 인해 사람이 죽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 탄기가 많은 곳으로 그는 폐갱, 술 담근 통, 노옥의 우물, 석탄 땀 방, 좁은 감옥 등을 들었고, 관련 내용을 참고 문헌들에서 뽑아 정리했다.⁴⁷ 그는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루 동안 숨 쉬는 공기의 부피로 3천 입방척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길이 25척, 너비 25척, 높이 12척 크기의 방이 거주에 적당하다고 주장했다.⁴⁸

표 2. 『신학신설』 ‘공기’ 편에서 보이는 한역 근대 과학서 활용 및 지식영의 의견

『신학신설』	글의 구성 (활용 문헌 및 의견)	내용
258 오른 9 - 258 오른 10	『박물신편』 1	공기의 정의
258 오른 10 - 258 왼 1	지석영 의견	공기의 정의 부연
258 왼 1 - 258 왼 2	『박물신편』 1	공기의 구성
258 왼 2 - 258 왼 8	『박물신편』 3	탄기의 특징
258 왼 8 - 258 왼 10	지석영 의견	화합물로서의 수기
258 왼 11 - 259 오른 8	『전체신론』 25	광합성
259 오른 9 - 259 왼 3	『유문의학』 40	광합성에 대한 부연
259 왼 3 - 259 왼 6	『전체신론』 24-25; 『유문의학』 44	양기(養氣) 공급원으로서의 식물의 중요성
259 왼 7	『전체신론』 212	호흡
259 왼 8 - 259 왼 10	의견(주석으로 처리)	생기 = 양기+담기(淡氣)

45 그의 글에서 탄기는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녔다.

46 지석영, 『신학신설』, 259.

47 그 가운데 노옥 우물의 예는 『한성순보』, 1884년 6월 4일 기사에서도 보인다.

48 지석영, 『신학신설』, 262.

『신학신설』	글의 구성 (활용 문헌 및 의견)	내용
259 원 1 - 260 원 3	『전체신론』 209-210 정리	생기, 탄기와 혈액: 폐의 역할과 혈액의 순환
260 원 3 - 260 원 9	지석영 의견	맑은 피의 중요성
260 원 9 - 261 오른 7	『전체신론』 210-211	폐와 심장의 구조 역할
261 오른 8 - 261 원 6	지석영 의견	사람의 호흡량
261 원 6 - 261 원 8	『유문의학』 23	탄기 누적 장소: 술통
261 원 8 - 262 오른 4	『박물신편』 11	탄기 누적 장소: 노옥 우물
262 오른 5 - 262 오른 7	『유문의학』 23	탄기 누적 장소: 목탄을 피운 밀폐된 방
261 오른 5 - 262 원 6	『전체신론』 220; 『유문의학』 23	탄기의 폐해: 인도 감옥
262 원 7 - 263 오른 7	『유문의학』 24	법률로 정해진 공공 시설의 면적: 영국의 예
262 원 6 - 265 원 8	『유문의학』 24-26	환기 방법
265 원 9 - 270 원 4(부 지기)	『유문의학』 26-32	대기에 관한 종합적 설명

〈표 2〉에서 보듯 지석영은 ‘공기’ 편에서 『전체신론』을 여러 번 그리고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그는 식물의 광합성뿐 아니라 호흡에서 폐의 역할, 혈액의 순환과 심장의 구조와 같이 신체와 관련한 해부학적 전문 내용을 『전체신론』을 통해 이해했고, 그 이해한 바를 발췌·정리해 실었다. 그리고 『유문의학』의 글로 부연 설명을 시도했다. 그는 공기가 인간의 보신에 미치는 영향을 호흡 기관과 혈액 순환과 더불어 설명했다. 이 설명 방식은 호흡을 체내(體內) 기의 순환과 연결 짓는 전통 양생과 매우 달랐다.

『신학신설』 ‘공기’ 편의 부론인 ‘지기(地氣)’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문의학』을 정리, 편집해 만든 글이다. 오늘날 ‘대기관’으로 불리는 ‘지기’란 그에 의하면 “아무 곳이든지 심상(尋常)이어든 바 공기를 일음이니 무릇 땅 위에 있는 바 냉열조습과 아울러 일체 공기로 더불어 상관된 모든 곳을 포괄했다.⁴⁹ 그는 이 부록에서 기압, 기온, 습도, 공기의 청탁 등과 관련한 지형, 대기

오염 등을 정리했고, 이것들과 건강의 관계를 점검했다.⁵⁰ 무엇보다 ‘지기’에서 그는 독기와 대기 환경의 관계를 상세히 해설했다. 그는 대도시의 지기가 시골보다 나쁘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매년 죽는 사람들이 시골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이런 현상이 런던의 조밀한 인구, 하수구의 독기와 제철 공장에서 방출된 폐수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석영이 보신과 관련하여 다룬 네 번째 주제는 ‘물’이었다. ‘물’ 편은 물의 정의, 물의 구성 및 삼태(三態), 증기압과 물의 순환, 물의 종류, 물 시험법, 물의 보신에서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체 상태의 물인 증기의 힘을 이용해 서양에서 증기 기관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박물신편』에서 가져와 밝힌 것과 이에 덧붙여 물의 순환을 설명한 자신의 글을 제외하고 ‘물’ 편은 모두 『유문의학』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었다.⁵¹ 경기(수소)와 양기의 화합물이자 소화와 혈액의 순환에 관계하고 생물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은 ‘보신’에 매우 중요했지만, 공기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지석영은 판단했다.⁵² 그럼에도 물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는 물의 ‘보신’ 이치를 설명하면서 특히 상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철 성분이 섞인 샘물이 보약 못지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음수(飲水) 못지않게 ‘씻기’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피부의 땀구멍을 막고 있는 오물들을 씻음으로써 피부병을 막을 수 있다면서 자주 목욕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해수(海水)와 뜨거운 물 및 찬물 목욕 방법과 주의 사항을 덧붙였으며, 물로 집안을 청소하고 하수도를 씻어 질병을 면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⁵³

지석영이 다섯 번째로 꼽은 보신의 주제는 ‘음식’이었다. 전체 분량의 약 1/3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들여 설명했는데, 음식의 정의, 필요성, 종류, 편식의 폐해, 소화 작용, 각종 식품의 최종 소화 산물, 다양한 단백질 식품, 고기 요리법, 회복기 환자식, 건강한 식사 방법과 더불어 주류, 지역에 따른 섭식 등으로 짜여졌다. 지석영은 이 ‘음식’ 편을 『유문의학』의 정리와 발췌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전체신론』에서 위 소화 작용에 관한 실험 내용을 가져왔다. 이 실험은 위의 윗부분에 충상을 당한 군인의 위를 구멍으로 남겨 치료한 후 각종 음식물

49 같은 책, 265-266.

50 같은 책, 265.

51 같은 책, 270; 『박물신편』, 38.

52 지석영, 『신학신설』, 270.

53 같은 책, 277.

주입에 따라 달라지는 소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이었다.⁵⁴ 이 실험은 매우 기괴했지만 그는 서양 의학이 증험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꽤 길게 소개했다. 이는 그가 소화 작용에 관심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입-식도-위-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과 소화 효소의 분비 방식, 음식이 영양소로 분해되어 몸에 영양분을 전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소화의 최종 산물과 특징 등도 제시함으로써 절제를 강조하는 전통 섭생과 달리 음식의 섭취가 ‘보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였다.⁵⁵

표 3. 『신학신설』 ‘음식’ 편에서 보이는 한역 근대 과학서 활용 및 지식영의 의견

『신학신설』	글의 구성 (활용 문헌 및 의견)	내용
278 원 8 - 278 원 11	지석영 의견	음식의 정의 및 중요성 - 벽곡 연기의 허구성
279 오른 1 - 279 오른 2	『유문의학』 41	골육(骨肉)의 음식 의존성
279 오른 279 2 - 279 원 2	지석영 의견	소화 능력의 노화에 따른 섭취 음식 의 변화 및 식생에 따른 금수(禽獸) 의 분류 (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279 원 3 - 280 원 4	『유문의학』 41 정리	음식과 생명 - 음식의 소화 과정
280 원 5 - 281 오른 3	지석영 의견	편식의 폐해
281 오른 3 - 281 오른 7	『유문의학』 50	육식 편식의 폐해, 항해자의 병 - 레몬
281 오른 8 - 283 오른 1	지석영 의견	불가(佛家) 채식의 문제, 환후 회복 기의 음식, 소화 관련 식품 정리
283 오른 2 - 284 오른 2	『전체신문』 163-169 정리	위의 소화에 관한 미국 의사의 실험
284 오른 3 - 284 원 2	지석영 의견	탄수화물과 본열, 단백질의 분해
284 원 2 - 284 원 3	『유문의학』 47	두부 제작법
284 원 3 - 284 원 7	지석영 의견	직날적리(젤라틴) 설명
284 원 8 - 287 원 2	『유문의학』 45-47 정리	각종 단백질, 최종 분해 산물
287 원 3 - 287 원 7	지석영 의견	허약자, 노인에게 인유(人乳)보다 우유가 나음

54 같은 책, 283-284; 이 실험은 『전체신문』, 167-169에도 게재되었다.

『신학신설』	글의 구성 (활용 문헌 및 의견)	내용
287 원 8 - 288 오른 11	『유문의학』 48	콩 단백질
288 원 11 - 288 오른 9	『유문의학』 47	교질(膠質, 콜라겐)의 설명
288 오른 10 - 288 오른 11	『유문의학』 49 정리	콜라겐 영양가 평가 실험
288 원 1 - 289 오른 4	지석영 의견	곡식, 채소와 육류의 열량 비교
289 오른 5 - 291 원 9	『유문의학』 50-53	편식의 폐해, 고기 요리법, 빵 제법, 환자와 허약자의 식품
291 원 10 - 292 오른 4	지석영 의견	식사 방식: 일정 시간, 일정량
292 오른 5 - 294 오른 5	『유문의학』 53-56 요약	식사 방식: 적당한 식사량, 술
294 오른 6 - 294 원 2	지석영 의견	지역에 따른 식품

지석영은 음식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도 9건이나 담아 ‘음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적극 밝혔다. 특히 그는 ‘음식’과 관련해 전통 양생과 불교의 섭생을 비판했다. 그는 ‘음식’이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열(生熱)의 원천임을 강조 하면서 전통 양생의 ‘벽곡 연기(卻穀練氣)’, 즉 음식을 끊고 운기(運氣)를 수련 하는 방식과 식육(食肉)을 금지하는 불가의 편식이 보신에 폐를 끼친다고 지적 했다. 또 환자의 원기를 복돋기 위해 육식을 권하면서 “시속(時俗)의 의원들이 이 이치를 몰라 병이 나은 후에 눈이나 귀에 문제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가 아둔해져 고생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⁵⁶ 그리고 “서양에서는 병에서 회복하기를 위해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고기를 많이 먹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채소와 과일, 지방 등을 가려 먹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화 잘되는 식품 및 안 되는 식품들을 제시했고 식사량과 식사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시간이 정해진 1일 3식의 식사, 밤 9시 이후의 금식 등을 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덧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석영은 운동을 건강을 위한 요소로 제시했다. 이 장은 『유문의학』을 정리한 것으로, 지석영은 별도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운동은 몸을 움직여 근육이 붙도록 하는 것으로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 사지(四肢)를

55 지석영, 『신학신설』, 284.

56 같은 책, 281.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했다. 독서거나 근로하는 사람들 모두 밖에서 햇볕을 받고, 맑은 공기를 쐬고, 바람을 맞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이 책의 부록 ‘보영’에는 수유, 이유 그리고 유치(乳齒)가 날 때의 증상 및 처방 등과 영아가 걸리기 쉬운 천연두, 홍역(마증, 麻疹) 등의 예방법이 수록되었다. 특히 지석영은 모두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수유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부 보영’ 편 대부분은 『부영신설』에서 생략과 발췌를 통해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는 『유문의학』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글을 발췌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가했다. 특히 ‘우두’에 대한 『유문의학』의 간명한 글로 장황한 『부영신설』의 글을 대체했고, 자신의 책인 『우두신설』에 자세하게 소개되어있다고 밝히면서 간단하게 처리했다.⁵⁷ 또 『부영신설』의 선(癰), 음[癰], 서개(蟻)와 같이 소아 피부병 및 해충을 ‘잡병’으로 포괄해 설명했으며, 젖니가 나올 때 아기들의 증상을 소개하는 한편 유치 관리법을 제시하기도 했다.⁵⁸

(2) 『신학신설』의 근대 서양 의학 이해와 그 한계

지석영은 『신학신설』을 편찬할 때 책의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재구성하거나 발췌하고 요약하면서 편집했다. 그는 원전의 글 순서를 바꾸어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⁵⁹ 이는 그가 서양 근대 과학의 용어와 개념을 바탕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해하고 글의 서술에 필요한 자신의 논리를 구축했음을 의미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활용한 문헌의 내용을 장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그가 『신학신설』을 쓰면서 한역 근대 과학서를 이용한 방식은 1850-60년대 최한기와 달랐다. 최한기는 한역 과학서를 접하고 이를 정리해 방대한 저서를 남겼지만, 그가 본 책들 가운데에는 근대 이전의 자연관에 관한 서적들도 포함되었고, 특히 근대 과학과 관련해서는 오해와 오류도 있었다.⁶⁰ 하지만 서양 과학을 토대로 동양 전통의 기 철학을 재구성

⁵⁷ 같은 책, 297.

⁵⁸ 같은 책, 303.

⁵⁹ 이런 글쓰기는 그가 동양 의학의 전통에 속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양 의학서는 여러 서적들에서 가져온 내용을 편집해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⁶⁰ 최한기가 본 서양 과학 기술서에 대해서는 최한기, 이종란 옮김, 『운화측험』(한길사, 2014); 이현구, 『최한기의 기철학과 서양 과학』(각주 8), 64 참조. 최한기는 “지기론”에서 『박물신편

하는 데 관심을 둔 그에게는 이런 점들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한편 최한기가 『신학신설』과 같은 몸에 관한 저술에 이용한 한역 근대 과학서는 모두 흡슨의 저작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보면 지식영이 최한기보다 훨씬 폭넓게 근대 과학 관련 서적을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신학신설』은 지식영 자신이 1885년에 편찬한 『우두신설』에서 참고 문헌들을 활용한 방식과도 달랐다.⁶¹ 『우두신설』 권지상(卷之上)의 ‘우두고(牛痘考)’, ‘우두속고(牛痘續稿)’는 그가 밝힌 대로 영국 의사 더전(德貞, John H. Dudgeon, 1837-1901)이 쓴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⁶² 또 ‘종두론(種痘論)’은 흡슨의 『부영신설』에 게재된 것을, 그리고 “논우두내력(論牛痘來歷)”은 『만국공보』에 실린 것을 그대로 옮긴 글이다.⁶³ 우두 시술과 관련한 권지하(券之下)의 글 가운데 첫 세편, 즉 ‘소아접종법(小兒接種法)’, ‘진두(眞痘)’, ‘위두(僞痘)’는 그가 스승 박영선을 통해 얻은 『종두귀감(種痘龜鑑)』의 글을 그대로 실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⁶⁴ 이처럼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되거나 서양인에 의해 한문으로 저술된 글들을 제목부터 전부를 가져와 『우두신설』을 편찬했다. 하지만 『신학신설』은 그가 설정한 보신지법의 여섯 축에 맞추어 참고 문헌들을 혼용하고 재편집했다. 자신의 이해와 논리에 맞추어 적당한 문구와 글들을 편집해 책을 꾸민 것이다. 그는 이런 작업을 통해 몸에 관한 새로운 학설을 이루려 했다. 이런 적극적 편찬의 태도는 심지어 5-6년 지난 뒤인 1890년대 말에 발간된 『대조선독립협회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영이 서문에서 고백했듯이 이 책을 국문으로 편찬하

『을 전제하면서 대기가 지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진(盡)해진다는 원문의 글을 후(厚)해진다고 바꿨다. 이는 그가 상층에서 강력한 힘으로 놀려야 대기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력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⁶¹ 『우두신설』은 그가 1885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책 역시 표지에서 그가 밝혔듯 ‘찬(纂)’, 즉 엮어서 펴낸 책이다.

⁶² 이 글은 『중서문전록』 제25호와 제34호에 실렸다. 『중서문전록』, 25 (1873년 5월); 34 (1874년 6월)

⁶³ “論牛痘來歷”, 『만국공보』 (奎中 4388). 이 글은 『한성순보』 1884년 4월 1일에 다시 실렸다; 久我克明 述, ‘小兒接種法’, ‘眞痘’, ‘僞痘’, 『種痘龜鑑』 (東京醫學校分版, 187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 책의 언급에 대해서는 허정, “지식영과 우두법의 보건사적 시론”, 대한의사학회 엮음, 『송촌 지식영』 (각주 4), 53-72 중 59 참조.

⁶⁴ 그 밖의 참고한 문헌에 대해서는 허정, “지식영과 우두법의 보건사적 시론” 참조.

⁶⁵ 『대조선독립협회보』, 1896년 12월 31일. 『대조선독립협회보』는 『격지회편』 1887년 1권 1호에 실린 徐壽의 序를 그대로 옮겼다.

는 일이 쉬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그가 참고한 근대 과학서의 수준에 기인했다. 『신학신설』에서 다룬 내용이 근대 과학서에 익숙한 지식영에게조차 꽤 낯설고 난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학신설』의 내용은 대부분 1880년대 수집된 한역 근대 과학서에서 가져왔는데, 이 책들은 서양에서 1850-60년대에 편찬되어 당시까지의 서양 근대 과학, 특히 화학, 생리학, 해부학, 약학의 성과를 반영했다. 이는 이 서적들이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서양 과학에 관한 체계적 훈련 없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양 과학, 의학, 약학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지식영이 이런 서적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국문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았다. 그 예를 그가 샘물의 철분이 지니는 가치를 자세히 설명한다며 『서약약석』을 언급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철분이 함유된 약수가 몸에 좋음을 “보제를 대신 혈만 헌이라”고 하면서 『서약약석』을 참고하라고 했지만 이 『서약약석』은 그다지 친절하게 이 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⁶⁶ 혈액과 몸의 관계, 혈액에서 철분의 역할 그리고 혈액과 철분의 결핍에 따른 증상, 처방, 필요한 약제 등이 제시되는 정도였다.⁶⁷ 이런 내용을 국문으로 써내기 쉽지 않았던 그는 단지 “쇠가 능히 보혈함을 인함”이라는 정도로 정리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가 참고 문헌을 제시한 6건이 모두 이런 서양 과학의 난해한 지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물의 전기 분해, 뇌근(腦筋)과 더위 사이의 생리학적 관계, 심장과 폐포, 피의 순환 등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등 그가 참고 문헌을 제시한 부분은 그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상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세분화, 전문화된 근대 화학도 지식영이 완벽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같은 종류의 원질(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 결과물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지식영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소를 모두 탄기라고 불렀다. 그에게 “탄기란 것은 그 성품이 유독하여 슛트[슛으로 더부러] 같고,⁶⁸ 우물 속에서 사람을 해치며,⁶⁹ “프랑스에서 자진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공기이기도 했다.⁷⁰ 이런 혼란은 그가 의존했던 『박물신편』과 『전체신론』에서 이를 탄기로 통칭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

66 지식영, 『신학신설』, 275.

67 『서약약석』, 30, 34.

68 지식영, 『신학신설』, 258.

69 같은 책, 261.

70 같은 책, 261.

유문의학』에서는 탄기와 탄경이기를 구별해 사용했다. 심지어 『유문의학』을 그대로 전재한 『위생요결』에서 조차 경기에 아래 첨자로 이(二)를 써서 탄기와 이산화탄소를 구분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점을 간과했다. 또 그가 물 속 석회수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실험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석회수를 침전시키는 시약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오류였다. 이 글의 원전은 『유문의학』인데, 그는 원문을 번역하면서 담경수(담경양초산)로 쓰는 과정에서 경기 아래 사(四)의 첨자를 뺐다.⁷¹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화합물에서 아래 첨자에 따라 화합물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만큼 그가 전문적인 근대 화학에 익숙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3. 새로운 보신지학: 근대 서양 의학과 전통 한의학의 습합

지석영의 『신학신설』에서 제시한 보신지학은 전통 양생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이 책의 목적으로 설정한 ‘새로운 보신지학의 구축’에 부합하는 글들만 일관되게 취사 선택했다. 여기에 유의적 가풍에 의해 습득되고 소년 시절 박영선에게 배웠던 한의학의 조예와 배경이 더해졌다. ‘부 보영’의 경우처럼 본문에 전통적 홍역 예방법을 첨가한 것이 그 예이다.⁷² 뿐만 아니라 그는 두주(頭註)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적 배경을 활용했다. 물론 그가 쓴 35개의 두주가 모두 그의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는 첫 두주로 “근래 서양에 병으로 죽는 자가 적은 것은 근대 의학의 보신하는 이치가 옛날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백세에 이르도록 일생에 병 없는 자도 있음”을 적었다.⁷³ 또 인공 호흡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생(食生), 일찍 일어나 일광을 쬌 일 것, 보온을 위한 입마개 사용의 권유 등도 두주에 포함되었다.⁷⁴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10개 두주를 제외한 나머지 25개는 근대 과학적 보신의 이치와 관련한 한방(韓方)적 제언들이었다. 그는 ‘열’ 편에서 차가운 기후가 몸에 끼치는

⁷¹ 같은 책, 274; 『유문의학』 37.

⁷² ‘부 보영’ 마지막에 『우두신설』에도 기록된 ‘희마진경험방’을 그대로 실었다. 이는 선달 그믐날 수세미 한 개를 달여 복용해 홍역을 예방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면 홍역 증세가 있어도 경미할 것이고, 세 번 반복하면 홍역을 앓지 않는다는 식의 경험방이었다. 지석영, 『신학신설』, 304.

⁷³ 같은 책, 280, 247.

⁷⁴ 같은 책, 260, 294, 250.

해를 막기 위한 보온을 설명하는 『박물신편』의 글을 정리해 옮기면서 냉기의 폐해를 두주로 적어 넣었다. 그는 “보통 사람이 냉기를 만나면 능히 정신으로 하여금 다시 활발해지지만 매우 추운 날씨에 허리에 찬바람을 받으면 내신에 종기가 난다”고 매우 찬 기운에 의한 병증을 제시했다.⁷⁵ 그리고 “문틈 찬 바람이 엄습한 바 되면 능히 병을 일운다”거나, “오래 병들어 허약한 사람일수록 마땅히 바람 통하는 집에 살아야 한다”거나 하면서 한의학적 견해를 표명했다.⁷⁶ 특기할 만한 두주는 방의 소독과 관련한 것이다. 이 두주에서 그는 서양의 화학약품이나 한약재를 이용한 방식을 함께 서술했다. 그는 집안의 독기를 없애기 위해 황강수(황산) 8전과 박초 4전을 그릇에 담아 훈증하거나 “유향, 감송향, 유향, 창출 등을 사르”라고 했다. 이 두주는 그가 『신학신설』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의 요체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⁷⁷

두주만이 아니라 본문의 주석에서도 지식영은 자신의 한의학적 조예를 포함한 자연 지식을 표현했다.⁷⁸ 공기의 흐름에 관한 설명에서 조선의 지형에 따른 바람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는 “건조한 동풍은 환자와 허약한 사람이 맞기 어렵고 건조한 동북풍은 차갑기까지 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두주로 “동풍을 촉모하면(심히 썩면) 사람이 병이 나고 북풍과 동북풍이 갑자기 일어날 때 거리를 나다니면 눈병이 걸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⁷⁹ 또 ‘음식’ 편에서는 “불결한 것을 먹으면 악창이 난다.”라고 지적했고,⁸⁰ 학질, 노점, 뇌염, 이질, 임질, 동창과 같은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은 수로(水路)를 고치고 맑은 기운을 많이 얻으라고 충고했으며, 나력(癰癤), 노점(癆漸), 뇌염 같은 병은 특히 “변(便)에서 옮겨오는 것이 더 묘(妙)하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⁸¹ 두주와 주석 등을 구성하는 태도를 미루어 그가 ‘새로운 보신

75 같은 책, 254; 흡수, 『박물신편』 20.

76 지식영, 『신학신설』, 263.

77 같은 책, 265.

78 본문에서 작은 글씨를 이용한 주석에는 지식영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수’ 편에서 그는 수질(경수 혹은 담수 여부)을 시험하는 방법의 설명 가운데 나오는 “비조와 이탈과 담경수와 담경양초산수”들을 “모두 약종이니 외국 약방에 구하면 가히 어디러라”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당시로서는 생소했을 ‘령몽(檸檬)’을 ‘과실 이름이니 그 맛 식초맛 든거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음식 이름에는 각각을 설명하는 글을 달기도 했다. 담경양초산수에 대해서는 지식영, 『신학신설』, 274, 령몽에 대해서는 같은 책, 271 참조.

79 같은 책, 267.

80 같은 책, 281.

지학'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는 근대 의학에 전통적 한의학의 접목을 시도해 동서양 의학의 새로운 습합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신학신설』의 편찬 방식은 한의학서의 정리 방식과 유사했다.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등으로 이어지는 한의학서 편찬 작업은 의학의 경전들이나 전통적 의서들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재분류 및 정리하는 한편, 모본의 내용들을 숙고하고 상식과 다른 점을 비판하며 실상에서 본래의 뜻을 찾고 새로운 징험을 더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⁸² 그의 『신학신설』도 바로 전통 한의서의 편찬 방식의 맥락에 속해 있었다. 그가 '서'에서 고백했듯 새로운 양생의 이치를 서양 근대 과학에서 찾고 이에 관한 서양 근대 과학서(혹은 의학서)를 모아 원전으로 삼았고,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한의학적 지식들을 본문의 주석과 두주를 활용해 첨가했다.

그럼에도 지식영의 '새로운 보신지학'은 1904-5년 애국계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대중들 사이에 확산된 위생학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위생을 내세워 조선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려 했던 일본의 개입도 이 위생학을 구성하는 데에 기여했는데, 이 위생학의 토대는 '세균설'이었다.⁸³ 하지만 지식영이 설정한 '보신지학'은 '세균설'이 아닌 '독기론'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는 그가 모본으로 택한 과학서들이 모두 서양에서 세균설이 정립되기 이전인 1850-60년대에 출판된 서적들이라는 점에 기인했다. 비록 『한성순보』의 '만국위생화'에서 병인(病因)의 하나로 전염을 거론했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확한 기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이를 모본으로 삼을 수 없었다. 이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고 분석적으로 보신의 이치를 풍부하게 설명한 서적들을 활용해 책을 편찬했던 것이다.

지식영은 몸에 대한 새로운 학설의 지평을 열었고 전통 양생과 거리를 두는 데에 성공했다. 그는 심지어 책제목을 『신학신설』, 즉 '몸에 관한 새로운 학설'

81 나력(癰癤)은 연주창을, 노점(癆漸)은 폐결핵을 말한다.

82 한의학서의 정리 태도에 대해서는 이경록, “향약에서 동의로: 『향약집성방』의 의학이론과 고유의술”, 『역사학보』 212 (2011), 243-278; 이경록, “『향약집성방』의 편찬과 중국의료의 조선화”, 『의사학』 20:2 (2011), 225-262; 김남일,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87 (1999), 195-213; 김성수, “18세기 조선 의학지식의 구조와 특성”, 『연세의학사학』 19:2 (2016), 7-33; 김성수,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欽英』으로 본 조선 후기 의학”, 『한국문화』 65 (2014), 99-134 등을 참조.

83 이종찬, “메이지 일본에서의 근대적 위생의 형성과정”, 『의사학』 12:1 (2003), 34-53.

이라고 이름 붙이며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위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에서 지적했듯, 그는 전통 시대에도 위생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양생이라는 말과 혼용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이(理)로써 기(氣)를 기름”이나 “기로써 기를 기름”과 같은 언어들로 가득 찬 방서들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시키고자 했다.⁸⁴ 요컨대 그는 ‘새로운 보신지학’에서 몸 밖의 병인에 주목하는 등 ‘보신’을 위해 시선을 몸의 외부로 돌렸으며, 이는 『신학신설』이 비록 1850년대 서양의 독기론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동아시아 전통 양생으로부터는 완전히 탈피해 거대한 전환을 이룬 책임을 의미했다.

4. 결론

지석영은 1880년대 조선 정부가 수집한 한역 근대 과학서 등을 이용해 양생 및 보신지학의 책을 편찬했다. 책 이름은 『신학신설』 즉 “몸에 관한 새로운 학설”이었다. 그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요인들로 새로운 보신지학의 틀을 구성했다. 새로운 보신지학을 구성하는 여섯 요소들의 기본 개념들을 규정하고 그것과 몸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서양 의학 및 과학 서적을 참고했다. 용어와 설명 방식, 몸에서의 작용, 관련된 다양한 실험 및 통계 등의 내용을 이 서적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새롭게 보신지학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석영은 자신의 논지에 따라 참고 문헌들을 정리하고 편집했다. 참고 서적을 전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지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편집했던 것이다. 이런 근대 과학서의 활용 방식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전통 한의서의 편찬 작업

84 최일범, “조선성리학에서 양생과 수양: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도교문화』 42 (2015) 37-64 중 46-47;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각주 12), 105. 이에 의하면 『성학집요』에서 이이는 섭생을 기반으로 하는 양생을 “기로써 기를 기름”으로 정의한 뒤 양생과 대비된 수신을 “이로써 기를 기름”으로 두어 상위 개념으로 삼았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를 기르면 따로 장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장수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위생’이라는 용어는 이미 조선을 포함한 한자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이용해왔으며 개항 이후 수집된 중국 서적에서조차 위생은 양생의 또 다른 말로 쓰였다. 예를 들어, 1876년 중국에서 중간(重刊)된 서적으로 수집된 『위생요술(衛生要術)』은 전통적 양생과 관련한 수련법을 다룬 서적으로 몸의 기운을 복돋기 위한 각종 신체 훈련법을 제시하고 설명한 책이다. 『衛生要術』 (奎中 5280).

과 맥이 닿아 있었다. 그렇다고 이 『신학신설』이 전통적 양생 서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서양의 근대 과학의 산물을 토대로 구축된 새로운 보신지학에 전통 한의학의 습합을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근대 위생서였다.

지석영이 편찬한 이 『신학신설』로 새롭게 구축된 ‘보신지학’은 보신의 원인을 몸 안에 국한시켰던 전통으로부터 탈피해 몸의 외부, 주변으로 시선을 확장시켰다. 비록 이후 근대 서양에 의해 문명의 척도로 설정된 ‘세균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책은 근대 서양 문명이 압박해 오고 있던 청결 및 위생 담론에 대처하는 조선 개화 지식인의 대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전통 한의학의 지적 배경을 가진 개화 지식인 지석영은 조선 정부가 수집한 근대 과학서를 활용해 새로운 ‘보신지학’을 구성함으로써 근대 과학과 전통 한의학의 습합을 추구했으며, 이를 통해 ‘몸에 관한 학설’의 변용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투고: 2017년 3월 2일, 심사 완료: 2017년 4월 26일, 게재 확정: 2017년 4월 28일)

A Joseon Intellectual's Understanding and Use of Modern Western Science Books Translated into Chines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i Seokyeong's *Sinhak sinseol*

KIM Yeon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ased upon his reading of the books on modern Western science translated into Chinese, a late nineteenth-century Korean intellectual Ji Seokyoung compiled a book in Korean, titled *Sinhak sinseol* 身學新說. With this book, Ji aimed to construct a new theory of *bosin* 保身. He built his theory upon the knowledge of light, heat, air, water, food, and bodily exercise, which he drew mostly from five books on modern Western medicine and science published in China and then introduced to Korea. Ji also inserted into the book his knowledge in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hak sinseol* and the books on Western science that Ji read, with the aim to shed light on the way in which Korean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gaehwa* 開化) understood and used modern Western science and medicine. By compiling the book, this paper argues, Ji attempted to criticize traditional *yangsaeng* 養生 and then to construct a hybrid between modern western hygiene and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a new theory that he called *bosin jihak* 保身之學.

Keywords. Ji Seokyeong, *Sinhak sinseol*, books on Western science translated into Chinese, *yangsaeng*, hygiene